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평양남노회 제188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4월 17일(화) 서울소재 영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총대로 참석합니다.
3. 다음 주일(4/22)은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준비된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없습니다.
4. 다음 주일(4/22)예배 기도담당은 이현호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전도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5. '봄철 가정심방'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당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15일(주일)-이준화 집사님 가정, 4월21일(토)-김한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6. 이태훈 형제(이준화-배은희 집사님)가 내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 군입대를 합니다.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4월 22일	4월 29일	5월 6일	5월 13일
예배기도(오전)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전도주일	목장주일	유숙정 권사	오희근 권사
주일식사담당	에스더 목장 (오희근 권사)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 목장 (최윤정 권사)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	갈렙 목장 (4/21)	에덴 목장 (4/28)	돌로스 목장 (5/5)	주사랑 목장 (5/1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7월 16일~21일에 있는 몽골단기선교를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봄철 가정심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신재준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단
의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장 2절~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02장 (통 408장)	다같이
기도	황희용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눅 8:40-56	인도자
말씀선포	‘믿어라’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505장 (통 268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22-40 ‘생명의 떡’(3)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7)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71:15-24 ‘위로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나무 심는 날의 단상(斷想)’

“어떻게 파가요?” 식목하는 날 농장에 함께 있던 전도사님이 물었다. “어떻게 하지요. 그냥 파면되지요.” 지인이 오랜 시간 동안 가꾸었던 나무를 나누어 준다기에 트럭을 빌려서 옮기려던 참에 나는 대화다. 아로니아, 반송, 해송,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종류도 크기도 다양하다. 처음 생각대로 아로니아 아홉 그루를 파서 차에 옮기고, 나중 아홉 그루를 파서 옮겨가기로 했다. 비온 뒤라 삽으로 나무를 파기에는 좋은데, 주변을 지나는 도랑물이 들어오면서 바닥이 바다의 뽕밭처럼 되고 말았다. 그렇게 진땀을 흘려가며 아로니아 아홉 그루를 파서 차에다 옮겨 실었고, 이제 여러 반송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그루를 파서 옮길 차례다. 그때 알았다. 삽으로는 반송의 그 크고 깊고 넓은 뿌리를 팔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 무겁다는 것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던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 삽으로 포크레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으니 말이다.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욕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삽질 몇 번에 나가 떨어졌다. 도무지 몇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그냥 마주보며 웃고픈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교회 텃밭에 옮겨다가 반송을 먼저 심고, 나중 돌아가면서 아로니아를 심겠다는 생각을 접는 순간이었다. 포기하니 한결 마음이 편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돌아서면서 속으로 말했다. “나중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꼭 파서 옮겨 가야지.” 포크레인 예찬론자가 아니다.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역설이 있다. 우선 사랑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진다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약자가 된다. 사랑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 나누어 반씩 주겠다고 했을 때,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사랑이 없는 어머니에게 굴복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공동번역, 눅 6:26). 자신의 한계도 모른 채 욕심으로 치닫는 삶을 향해. 그리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자하는 연약한 삶을 향해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닌가. 소소한 일상 속에 다시금 깨닫는다. 뜨끔하다.

Written by 허영진